

# 다윈 등대 삼아 경제 넘나드는 광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뿐 아니라 경제·사회·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에코과학연구소 소장)는 통섭학자로 불린다. 지난 몇 년간 그에게 붙은 새로운 호칭이다. 호칭은 개인의 삶과 존재를 규정하는 준거다. 그는 통섭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강의한다. 통섭적으로 글을 쓰고, 연구하고, 예측한다. '통섭=최재천'은 하나의 고유명사 내지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최근에 그를 이화여대 종합과학관 연구실에서 만났다. 교수답지 않은 친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서울대 출신 최초 하버드 생물학 박사이지만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하다. 권위적이지 않지만, 학문적 권위에서 나오는 내공이 느껴졌다.

### '통섭=최재천'...인문학·자연과학 등 섭렵 '우연과 필연' '이기적 유전자' 등 영향 받아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맑스, 프로이트, 다윈을 꼽습니다. 맑스와 프로이트는 죽었지만, 다윈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맑스와 프로이트 이론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고 있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여전히 옳기 때문이죠."

통섭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건 아니다. 과마다 칸막이가 높아 자신만의 '성'에 갇혀 한 우물을 파는 게 일반적인 대학의 모습이다. 경계를 넘어 인접 학문을 연구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통섭(consilience)은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유클에 의해 정립되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개념으로 학문간 소통을 의미

한다. 영국에서는 사문화되었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2005년 최 교수가 처음 화두를 던진 이후 넘나들, 융합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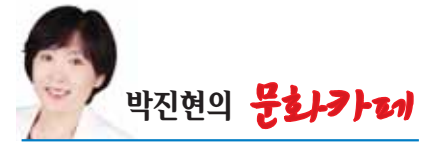
최 교수는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뿐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인문사회 분야는 물론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근래에 떠오르고 있는 진화 윤리학, 진화 심리학, 진화 게임 이론 등은 모두 다윈이 뿌린 씨가 발아한 결과물이다.

원래 최 교수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그의 서재엔 인문학 서적부터, 자연과학, 사회과학, 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이 꽂혀 있다.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 마흔 이후 그는 누에고치기 실을 뽑아내듯 글을 쏟아냈다. 그가 펴낸 책만 30여권이 넘고 공저까지 합하면 60여권쯤 된다. 그의 독서편력은 자연과학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텍스트 폭이 넓다.

그는 어떤 계기로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었을까.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책으로 '우연과 필연' '이기적 유전자'를 꼽았다. 전자 "생물학의 매력에 눈을 뜨게 해준 책"이라면 후자는 "세상을 보는 과학적 기준을 마련해준 책"이다. 지금도 책을 읽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마지막 책장을 덮었을 때 환희가 밀려왔다. 인식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가지런해졌다.

하버드대학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 동안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했다.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되었지만, 어느 날 문득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식에 목말라 하는 내 나라 후배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단순히 가르치는 기계가 아니라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인슈타인보다 피카소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비결에 대해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연구실 학생들에게 "논문 안 쓰니"라고 물으면 대개 "아직"이라는 답을 한단다. 휴린을 때리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인슈타인은 만루 휴린을 때린 케이스다. 그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한다. "내가 아인슈타인인가"라고. 그러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진다. 그는 "피카소처럼 여러 작품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휴린을 때릴 수 있어야. 단타를 많이 때려야 결정타도 날릴 수 있어요. 세계적 대학들은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꽃이 정원에서만 핀다는 생각은 편견에 지나지 않아요.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핀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싶네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레

미국 영화감독 우디 앨런(78) 만큼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들여다 보면 다른 감독들에 비해 유독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다. 우디 앨런의 빼어난 영상과 연출로 '재발견된' 도시들은 관객들의 가슴에 로망을 심어주었다.

그중에서도 뉴욕은 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도시였다.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40년간 뉴욕도박이로 살면서 '맨하탄' '에니홀' '뉴욕스토리' 등을 제작해 '진정

중인 '로마 위드 러브'(To Rome with Love) 역시 우디 앨런이 아주 '대놓고' 영원의 도시 로마를 예찬한 영화다. 시간이 멈춘 듯한 로마에 가면 누구나 사랑에 빠진다는 영화는 4가지 색깔의 에피소드와 연출로 '재발견된' 도시들을 관객들의 가슴에 로망을 심어주었다. 특히 베네치아 광장, 트레비 분수, 콜로세움 같은 명소들은 관객들을 지독한 '로마 애틀'이 빠져들게 한다.

극장문을 나오면서 문득 '만약 우디 앨런이 광주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 광주 위드 러브

(To Gwangju with Love)

한 뉴욕키'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대 중반, '멜린다와 멜린다' 등이 부진하면서 스폰서들이 하나 둘씩 발을 빼자 새로운 '큰손'을 찾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갔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크랭크인한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는 그의 견해를 보여준 작품이다. 노을을 따라 파리 곳곳의 건물과 골목을 비추며 시간 여행을 떠나는 영화는 재치있는 상상력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건넜다. 모네의 정원, 세느 강변, 로망미술관, 생 에티엔 뒤 몽 교회와 짧은 시절 헤밍웨이 즐겨 찾았던 플리도르 레스토랑, 세익스피어 엔드 캠퍼니(영미문학 전문서점), 맥스 드 파리(고갱과 드가의 사랑방) 등 문화명소들은 수많은 '파리페인'을 양산시켰다.

해냈다. 물론 '꽃잎' '화려한 휴가' '식객-김치전쟁' '26년' 등 광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있긴 하나 '문화도시 광주'의 아우라를 보여주는 영화는 거의 없었다. '로마 위드 러브'나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보듯 한 편의 영화는 도시를 '되살릴' 정도로 위력적이다. 영화만큼 회색빛 도시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효과적인 매체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더불어 광주를 영화로 '재발견'하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무등산, 아시아 문화전당, 5·18 국립묘지 등을 보며 '버킷리스트'(bucket list·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는 목록)에 '광주'를 올리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설레고 즐겁지 아니한가.

최근 극장에서 인기리에 상영

<편집부기자 겸 문화전문기자>

##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 입상자

<심사위원> 김혜경(조선대 교수) 구복희(전남과학대 교수) 구재형(호신대 교수) 유신영(남부대 교수) 박규연(군산대 교수)	33 이슬비(향도 2) ▲ 금상 25 이민규(태봉 2) ▲ 은상 27 김동연(영동 2) 34 부지현(화순면 2) 35 김경수(치평 2) ▲ 동상 6 송지희(담양동 2) 8 이윤솔(태봉 2) 10 이시영(광주상무 2) 11 김나은(만호 2) 15 이아현(큰별 2)	18 박예원(산월 2) 19 권성주(송정 2) 22 최희선(송정 2) 23 장상훈(수문 2) 26 임여진(봉선 1) 32 윤나경(경양 1) ◇ 초등부 5, 6학년 ▲ 최고상 73 선지수(전주인봉 5) ▲ 금상 1 노민경(북포항도 5) 66 전하준(신암 6)	93 서민수(태봉 5) 104 선지호(전주인봉 5) ▲ 은상 5 고은후(태봉 6) 9 김사랑(신항 6) 16 황지은(광주봉산 5) 25 한승은(광주동산 5) 28 홍인선(일곡 6) 38 이명훈(북포항도 6) 45 이하린(순천왕지 6) 72 양보미(진제 6) 89 김미린(화순제일 6) 96 김민지(광주동문 6)	97 박은지(불로 6) 103 정예은(화순면 6) ▲ 동상 2 김소망(태봉 5) 8 김희준(계수 5) 15 소수현(은빛 6) 19 한재민(구례중앙 6) 21 김세진(장덕 5) 23 유호성(영광중앙 5) 27 이예원(무안남약 5) 40 오세영(수문 6) 41 김세민(신암 5) 42 임예원(방림 5)	43 이신희(별교 6) 46 김경혜(봉산 5) 47 명다연(화순면 6) 52 진현진(신항 6) 63 장지성(광양중앙 5) 77 배준희(북포항도 6) 79 일다래(일곡 5) 80 홍우진(군산미성 6) 81 오수빈(장덕 5) 82 이성준(광주송원 6) 84 이채원(장산 6) 91 유유빈(큰별 6) 99 김세은(수문 6)
---	--	--	---	--	---

## 아문단, 한-베트남 현대미술 교류전

10일~26일까지 전시작 문화전당 기증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파주 한향림동기박물관 전시실에서 주한베트남대사관, 파주시청 등과 함께 한국-베트남 현대미술 교류전 '회화지교'(繪畫之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베트남 작품 원작과 세라믹 전사 작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이자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 기증된다.

전시회에는 허달재 외재 미술관장, 오경환 한예종 전 미술원장, 한향림도예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베트남에서는 르영수연도안 베트남당 중앙위예술부국장, 도안홍 하노이현대미술센터장, 응엔반끄영 작가 등의 작품이 출품된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5시에 열리며 한국과 베트남 유학생으로 이뤄진 공연팀의 연주 무대가 마련된다.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www.elysia.co.kr

### “축복 받은 집”……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27,000
초등학생	12,000	14,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  
☎ 061-332-1111

- 150석 규모 웨딩홀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맞춤형식 권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성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특선	정식코스요리
참조기탕 12,000원	A코스 40,000원
생우럭탕 12,000원	B코스 50,000원
대구탕 15,000원	C코스 60,000원
생선초밥 12,000원	(1인기준 2인이상)
특초밥 15,000원	주말 가족특선
생선구이 15,000원	4인 한상차림 100,000원
굴비정식 2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
나고야정식 25,000원	